

寓菴 洪彥忠의 시에 나타난 巨濟島의 표상과 유배체험의 형상화 양상*

김보경**

— <차 례> —

1. 들어가는 말
2. 부친 홍귀달, 갑자사화, 그리고 유배길
3. 거제도의 표상과 유배체험의 형상화 양상
 - 1) 감옥으로서의 섬, 囚人의 형상과 단절의 심상들
 - 2) 문화공간으로서의 섬, 詩·友를 통한 위무와 자기 계발
 - 3) 길로서의 섬, 성찰과 順命 그리고 진실의 발견
4. 나오는 말-‘빈 방’의 진실을 찾아가는 길

〈국문초록〉

寓菴 洪彥忠(1473~1508)은 甲子士禍에 연루되어 巨濟島에서 약 2년 동안 유배생활을 했다. 이때 그가 지은 시는 60제 안팎(총 110여 수)으로 전체 작품의 1/4에 해당한다. 본고는 이들 시에 나타난 거제도의 표상과 유배체험의 형상화 양상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했다.

첫째는 감옥으로서의 섬—囚人의 형상과 단절의 심상들이다. 갑자사화는 부친 洪貴達이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부친은 처형되고 홍언충 형제들은 모두 유배되었다. 그의 시에 감옥으로서의 유배지, 囚人 형상이 상대적인 강조점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絶島에 억류되어 있는 객관적 현실, 심리적 폐소감과 함께 가문의 몰락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다. 한편 감옥으로서의 표상, 수인 형상은 단절의 심상들을 동반하는데, 분노나 원망보다는 우울감과 자탄의 정조를 띠는 경우가 많다.

* 본 논문은 2012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인제대학교 기초대학.

둘째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섬—詩·友를 통한 위무와 자기 계발이다. 그의 시는 대부분 次韻詩·寄贈詩 같은 관계 지향성의 시가 많다. 이것은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동료 유배객들이 있었던 덕분이다. 특히 李苻 등이 거제도로 옮겨온 뒤에 거제도도 문화공간으로서의 표상을 본격화한다. 거제도는 유배객은 물론이고 외부 지식인의 방문, 거제도 지식인의 참여등 文化交涉의 공간으로서도 구실했다. 이 속에서 그는 유배의 괴로움을 위로 받고 문학적으로 교감하면서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셋째는 길로서의 섬—성찰과 順命 그리고 진실의 발견이다. 거제도에서의 생활은 자신과 세상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는 유배의 일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성찰의 주제를 찾아내곤 했다. 그리고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 거부·외면이 아닌 順容을 통해 안으로 누그러뜨리는 방향으로 갔다. 부친의 호 ‘虛白’처럼 주어진 상황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바깥을 경영하기보다 내 ‘빈 방[虛室]’의 진실을 발견하는 일이 그의 궁극적 선택이었다.

홍언충은 해배 후 세상에 나가지 않았다. 병약함만이 이유가 아니었다. 거제도에서의 유배체험을 어떻게 수용하고 생의 어떠한 자료로 삼았는가, 이것이 이후 삶의 행로를 내었다. 그에게 거제도/유배생활/시 짓기는 곧 ‘빈 방의 진실을 찾아가는 길’이었으며, 이것은 해배 후의 삶으로 분명한 결론이 지어졌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寓菴, 洪彦忠, 거제도, 유배체험, 유배한시, 洪貴達, 李苻, 虛室

1. 들어가는 말

①

거제는 영남의 대해 가운데에 있다. 섬 전체에 장독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데 황량한 땅에 인적도 드물다. 하늘을 뒤덮는 수풀과 높지대가 광대하게 펼쳐진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울창하게 우거진 黃茆와 白草뿐 몇

십 리를 걸어가도 사람 사는 곳을 볼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겨울에도 눈이 쌓이지 않고 여름에는 오랜 기간 장맛비가 내리기 때문에 각종 독사와 독충이 우글거리는데 대책을 세워 조금 완화시켜 보려 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토지가 척박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판에 올해는 또 흉년까지 겹쳤다. 그런데 내다 팔 재물도 없을 뿐더러 꾸어 줄 만한 곳도 없어서 죽을 끓여 먹어도 몇 사람 입을 대기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늘 굶주린 기색을 띠고 있다.¹⁾

張維(1587~1638)는, 巨濟島에 유배중인 洪茂績이 보낸 심부름꾼으로부터 당시 거제도의 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 받는다. 이를 들은 장유는 “그 곳의 환경이 이처럼 열악하단 말인가! 勉叔(홍무적의 자)이 이렇게까지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인가!”²⁾ 크게 탄식했다.

지금의 거제도는 巨加大橋까지 개통되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관광지가 되었다. 그러나 기실 거제도는 역사와 전통 깊은 ‘絶島定配地’이다. 절도정배는 섬에 정배하는 것으로, 그 대상지는 국가에 의해 지정되었다. 광해군 4년(1612) 기사를 보면 당시에 濟州·旌義·大靜·珍島·巨濟·南海등 여섯 곳이 절도정배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절도정배지의 수는 조선후기에 이르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³⁾ 이중 거제도는 초기부터 절도정배지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틀어 볼 때 제주도 다음

1) 張維, 『谿谷先生集』 권5, <寄洪勉叔序>. “巨濟在嶺南大海中 瘴毒所聚 地荒而人稀 穹林大藪 黃茆白草 蒼蔚而極目 行數十里 不見人煙 冬無積雪 夏多淫雨 虺蛇蚊蠱之毒 備稍弛不免也 土瘠艱食 又值歲之歉 販鬻之無貨 稱貸之無所 饑粥不給數口 恒有菜色”.

2) 위의 글. “地乃有若是惡哉 而勉叔乃若是困哉”.

3) 『광해군일기』 권58, 광해군 4년(1612) 10월 12일. “我國絶島 濟州·旌義·大靜·珍島·巨濟·南海等六邑”. 절도정배에 대해서는 장선영, 『조선시기 유형과 절도정배의 추이』, 『지방사와 지방문화』4-2, 역사문화학회, 2001 참조.

으로 유배객들이 많이 거쳐 간 섬이다. 장유의 글이 증언하듯 거제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악명 높았으니 罪人の 流刑地로는 적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죽음의 땅은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문학작품을 터워 낸, 창조 의 땅이기도 했다. 거제도 유배는 고려시대 鄭敍로부터 시작되어 李荇(1478~1534)·丁燾(1512~1560)·宋時烈(1607~1689)·金鑣圭(1658~1716)등을 거쳐 근세까지 계속되었다. 보고에 의하면, 거제도 유배객은 총 500여 명, 유배문학 작품은 600여 편에 이른다고 한다.⁴⁾ 규모로 볼 때 이른바 ‘거제도 유배문학’을 하나의 독립 연구과제로 세워도 모자람이 없는 수준인 것이다.

② 본고에서 살필 寓菴 洪彦忠(1473~1508)⁵⁾은 조선전기의 문인으로, 문학사뿐만 아니라 거제도 流配文學의 역사에서도 알지 않은 획을 그었던 인물이다.

홍언충은 岳溪 洪氏 가문 출신이다. 성종대부터 연산군대까지 文衡을 잡고 재상의 반열에까지 올랐던 洪貴達(1438~1504)이 그의 부친이다. 홍언충은 李荇·朴闇·鄭希良 등과 ‘詩家四杰’로 일컬어질 만큼 문학적 명성도 높다. 문집으로 『寓菴稿』⁶⁾가 있다.

4) 거제도 고전문학 작품은, 현재까지 도입한 관리나 거제선비, 학자 등이 지은 한문학과 한글작품이 120여 편에 이르며, 거제도 유배문학 작품은 630여 편이 발굴되어 있다. 또한 거제도 전승민요는 총 417편, 구전설화는 약 250여 편으로 조사되어 있다. 고영화, 「거제도 고전문학의 이해(1)」, 『뉴스앤거제』, 2011년 3월 17일. 이 수는 조사가 진척됨에 따라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5) 홍언충의 생애와 전반적인 작품 상황에 대해서는 권혁명, 「우암 홍언충의 한시 연구-불운의 ‘병상구’와 ‘和光同塵’의 현실대응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36, 우리어문학회, 2010 참조. 그 문학적 명성, 작품의 질·양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홍언충 문학에 대한 연구는 이 논문이 유일하다.

그는 연산군 10년(1504) 甲子士禍에 연루되어 유배길에 올랐다. 처음에는 鎭安에 있다가 뒤에 거제도⁶⁾로 옮겨 약 2년 동안 억류생활을 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유배와 관련이 있는 시는 90여 제이다. 이중 거제도 유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시는 60제 안팎(110여 수)⁷⁾이다. 이는 전체 작품의 1/4에 해당한다. 시의 대부분은 次韻詩·寄贈詩이다.

홍언충에게 유배생활은, 유배객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생애에서 가장 특수한 체험이자 중요한 문학적 자원으로 작용했다. 이 체험·자원을 그가 작품에 어떻게 문학적으로 변용, 형상화하였가 하는 것이 본고의 관심사이다. 본고는 특히 시에 나타난 거제도의 표상에 초점을 두고 유배체험 및 그 문학적 형상화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첫째는 감옥으로서의 섬과 그곳에서 빚어진 자아형상 및 심상에 대한 탐색, 둘째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섬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교유·문학·문화의 양상에 대한 고찰, 셋째는 길로서의 섬과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탐사이다.

본고는 홍언충의 유배 ‘문학’에 대한 고찰이면서 유배 ‘문화’에 대한 탐구이기도 한 것으로, 시기적으로는 조선전기 유배문학·문화, 지역적으로는 거제도 유배문학·문화의 실제 및 특성을 밝히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고에서 시도하는 세 차원의 탐색이 유배한시에 대한 유용한 분석틀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본고에서는 한국문집총간18의 『우암고』(3권)을 기본 텍스트로 한다. 홍언충의 시문은 딸 洪氏가 家藏해 둔 것을 外孫婿인 金宇宏이 선조 15년(1582)에 처음 간행했다. 권미에 김우평의 발문이 있다. 권혁명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寓菴先生文集』(4권 2책)을 대상으로 하여, 홍언충의 작품을 시 253제(418수), 부 2편, 제문 1편으로 설했다. 권혁명, 앞의 논문, 2010, 152면 참조.

7) 홍언충의 시집은 대략 시기별로 편차되어 있으나, 그중 시기의 선후가 달리 보이는 것이 섞여 있어 정확한 수를 말하기는 어렵다.

2. 부친 홍귀달, 갑자사화, 그리고 유배길

① 홍언충의 자는 直卿, 호는 寓菴이다. 洪得禹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洪孝孫이고, 아버지는 참찬 洪貴達이며, 어머니는 金淑正의 딸이다. 연산군 원년(1495) 사마시를 거쳐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 부정자가 되고, 정자·저작·박사를 역임했다. 동왕 4년(1498) 賜暇讀書한 후 이듬해 수찬이 되고, 正朝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동왕 9년(1503) 교리에 이어 예조 정랑에 올랐으나, 이듬해 갑자사화로 門外黜送되었다가 진안에 유배, 다시 거제도도 이배되었다. 중종 원년(1506)에 풀려나 성균관 직장에 임명되어 사기독서를 명받았으나 병으로 사양, 2년 뒤 동왕 3년(1508)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尙州의 近巖書院에 배향되었다.

홍언충은 ‘홍귀달’의 셋째 아들이다. 이것은 홍언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왜냐하면 홍귀달이 바로 갑자사화의 도화선이 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갑자사화는 凌上의 척결과 廢母 사건의 보복이라는 두 가지 원인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며 발발한 사건이다.⁸⁾ 그런데 이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는 홍귀달로부터 시작되었다. 연산군 10년(1504) 3월 연산군이 참봉 洪彦國의 딸을 입궐시키라 명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홍언국은 홍귀달의 넷째 아들이며 홍언충의 아우이다. 홍귀달은 손녀가 병이 있어 간택에 응하지 못한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연산군은 不敬罪를 들어 정치적 숙청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앞서 凌上之風의 괴수로 몰려 귀양을 갔던 李世佐도 2차로 유배되었다. 이것이 갑자사화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⁹⁾

8) 김범, 『연산군-그 인간과 시대의 내면』, 글항아리, 2010, 222면.

9) 갑자사화에 대해서는 한희숙, 『조선전기 이세좌의 생애와 갑자사화』, 『조선시대사학보』50, 조선시대사학회, 2009 참조.

10월 21일: “홍귀달과 이세좌에게 연좌된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자는 모두 바다 밖으로 들여보내 종으로 만들어 고역시켜라.”¹⁰⁾

10월 22일: “홍언충 등 및 이극배·이극중·이극감·이극돈·이극균 등의 자자손손은 모두 먼 변방으로 축출하여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라.”¹¹⁾

이해 6월 홍귀달은 杖刑을 받고 慶源으로 귀양 가던 도중 端川에서 교살되었다. 10월 21일, 연산군은 홍귀달과 이세좌에 연좌된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자는 모두 섬으로 보내 종으로 만들어 고역시키게 했다. 홍언충을 비롯한 나머지 세 형제 洪彦昇·洪彦邦·洪彦國도 모두 유배되었다. 이 사회로 그 가문이 몰락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 되어 참화를 당했다. 갑자사화의 피화인 명단에 오른 사람만 모두 239명이다. 사형된 사람은 96명, 유배된 사람은 106명에 이른다.¹²⁾

㉔ 홍언충은 유배길에 오르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외로운 객관 베개맡에 맑은 바람 시원한데	一枕清風孤館裏
늪은 해나무 옆에서 탁주 석 잔 기울이네.	三杯薄酒老槐邊
이번 길 살아 돌아올 날 헤아릴 수 없으니	此行未料生還日
유유한 모든 일들 단지 하늘에 붙이노라.	萬事悠悠只付天

-〈幽谷驛館 謫時〉(권2)

10) 『연산군일기』 권56, 연산군 10년(1504) 10월 21일. “洪貴達·李世佐緣坐人中其切近者 竝海外入送 爲奴苦役”.

11) 위의 책, 같은 곳, 10월 22일. “洪彦忠等及李克培·克增·克堪·克墩·克均等 子子孫孫 竝逐邊裔 永不復還”.

12) 김범, 앞의 책, 2010, 239-244면.

유곡역은 문경현 남쪽 40리에 있다. 홍언충의 고향집 부근이다. 그 유곡역의 重修記를 쓴 사람은 다름 아닌 부친 홍귀달이다. 유곡역은 서울과 영남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홍귀달은 이를 ‘사람의 목구멍’에 비유했다.¹³⁾ 묘하게도 이곳에서 홍언충은 자신이 운명의 길목에 서 있음을 알았다. 그는 이번 걸음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일을 하늘에 붙인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겠다는 뜻이었다.

진안으로 가는 도중 지은 시에서는, 읍을 강산이 있고 읍을 제주도 있지만 남의 눈이 두려워 시를 적지 않는다고 했다.¹⁴⁾ 생사를 장담할 수 없고, 남의 이목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처지였다.

그는 진안에 정배되었을 때 自撰墓銘을 지었다.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 실화한 것이다.

대명의 천하에	大明天下
해 먼저 비추는 나라로다.	日先照國
남자의 성은 홍이요	男子姓洪
이름은 충, 자는 직이라.	名忠字直
반생토록 우랄하게	半生迂拙
글공부만 골몰하다	文字之攻
세상에 산 지 서른 하고	在世卅有
두 해 만에 생을 마쳤네.	二年而終
명은 어찌 그리 짧으며	命何云短
뜻은 어찌 그리도 긴가.	意何其長
옛 고을	卜于古縣

13) 洪貴達, 『虛白亭文集』 권2, <幽谷館重修記>. “比於人 是驛也 其嶺南之咽喉乎 咽喉病則食飲不得通 食飲不得通 則其生也可冀乎”.

14) 『우암고』 권2, <眞安途中吟>. “眼底江山元歷歷 袖中詩律已崢嶸 怕人不敢閑題句 謾有青崖十丈橫”.

무림 마을에 무덤 정하니	茂林之鄉
위에는 구름산이요	雲山在上
아래는 물굽이라.	灣碕在下
천추만세 뒤에	千秋萬歲
누가 이 들을 지나갈꼬?	誰過斯野
손으로 가리키며 배회하면서	指點徘徊
반드시 슬퍼할 이 있으리라.	其必有悵然者矣

-<甲子歲 予謫眞安縣 事將有不測者 自分必死 擬古人自挽而銘之 且戒子云>(권2)

그는 사태가 예측할 수 없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고 자신도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짐작했다. 그래서 옛사람을 모방하여 자찬묘명을 짓고 아들에게 훈계했다. 이때 그의 나이 32세, 자신이 묻힐 곳으로 고향인 茂林 마을을 점찍어 놓았다.

갑자사회는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기이한 정치적 비극이었다. 소위 ‘훈구파’, ‘사림파’ 할 것 없이 사회의 희생자가 되었다. 홍언충이 유배길에 지은 시와 자찬묘명은 이 비극에 휩쓸린 피화인들의 절박한 상황과 심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벗 李荇은 훗날 유곡의 들을 지나면서 홍언충의 옛 집을 바라보며 비감에 젖어 시를 쓰고 이 명을 함께 실었다.¹⁵⁾ 『稗官雜記』에는 홍언충이 이 명을 짓고 “몇 달 뒤 과연 피살되었다.”¹⁶⁾라고 극적으로 각색된 글이 실려 있기까지 하다.

스스로 미리 죽음을 맞이들인 홍언충은 그러나 연산군 10년(1504) 겨울, 다시 바다 밖의 외떨어진 섬, 악명 높은 절도정배지 거제도도로 옮겨졌

15) 李荇, 『容齋集』 권7 『南遊錄』, <過幽谷野 望洪直卿舊居 痛楚之餘 遂成一絕 用幽谷驛壁上韻>.

16) 『稗官雜記』 권4. “後數月果被殺”.

다. 사정은 자세치 않으나 그의 형제들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거제도도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¹⁷⁾ 이로부터 약 2년에 걸친 거제도 유배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변방 섬에서의 유배체험을 60제 안팎(110여 수)의 시로 담아내었다. 이 시들이 본고의 고찰 대상이다.

3. 거제도의 표상과 유배체험의 형상화 양상

이 장에서는 홍언충의 시에 나타난 거제도의 표상과 유배체험의 형상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는 감옥으로서의 섬, 두 번째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섬, 세 번째는 길로서의 섬이다. 이것은 거제도의 세 차원의 표상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른 변화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종합적 의미는 논의 후 정리하기로 한다.

1) 감옥으로서의 섬, 囚人の 형상과 단절의 심상들

홍언충 시에 나타난 거제도의 첫 번째 표상은 ‘감옥’이다. 어떤 유배지든 기본적으로 감옥의 속성을 갖는다. 그런데 그의 시에는 감옥으로서의 유배지, 갇힌 자-囚人으로서의 형상이 상대적인 강조점을 갖고 나타남이 유의된다. 먼저 그가 자신이 귀양 살고 있는 곳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본다.

바다 밖에서 또 바다 밖의 사람이 되었으니 海外還爲海外人
비로소 이 신세 다시 이웃 없음을 알겠노라. 始知身世更無隣

17) 南海에 머물 때도 아우 洪彦國(公佐)이 그와 같은 지역에 있었다. 『우암고』 권2, <南海 寄舍弟公佐>. “身世偶兄弟 謫居還一方”.

...

-<遊柚島>(권3)

시제의 ‘柚島’는 ‘柚子島’로도 불리는, 거제도 북쪽에 있는 섬이다. 크고 작은 섬 두 개가 있는데, 온 섬에 유자나무가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홍언충의 주 거소는 정확히 말하면 거제도가 아니라 유자도이다.¹⁸⁾ ‘바다 밖의 바다 밖’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중국의 해외인 조선에서 또 바다 밖에 있는 섬(거제도/유도)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는 조선에서 바다 밖인 섬(거제도)에서 또 그 밖인 섬(유도)으로 보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가 자신이 있는 곳을 세상의 끝자락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천지가 비좁다 길이 한탄했거늘 區中長恨隘
하물며 이 땅에 죄수가 되었음에라. 此地況爲囚

...

-<次強哉韻> 제 3수(권3)

‘이 땅에 죄수가 되었다’는 것은 객관적 상황 인식이다. 그런데 그 앞구의 “천지가 비좁다 길이 한탄했건만”¹⁹⁾이라는 말과 잇대어 놓고 보면 이것은 심리적 상황 인식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아우 홍언국은, 홍언충의 천성이 탄술하여 법도에 구애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²⁰⁾ 또 정희량은

18) 그러나 홍언충이 유도에만 불박혀 살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음 시를 보면 그는 거제도의 主峰인 鷄龍山 아래 머문 일도 있었다. 이행, 『용재집』 권6 『海島錄』, <寄直卿兼示君美·公頤【時君美·公頤 俱下灸】>. [詩註] “直卿住鷄龍山下”.

19) 이 말은 漢 司馬相如 <大人賦>의 다음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史記』 권117, 『司馬相如列傳』, “迫區中之隘陝兮 舒節出乎北垠”

20) 洪彦國, <墓碣>, 『우암선생문집』 권4 『附錄』, “公天性坦率 不循規矐”.

홍언충의 기운이 ‘磊落’하다 했고,²¹⁾ 이행은 그를 ‘당당한 우암의 선비’라고 했다.²²⁾ 이 기개 우뚝한 사람이 유자도라는 작은 섬에 우거 있으니, 그가 수인생활에서 얼마나 큰 압박과 구속을 느꼈을지 짐작된다.

옛날 <수산부>를 읽고서	昔讀囚山賦
귀양살이 뜻을 알았는데.	因識謫居意
지금 와 보니 눈에 보이는 건	今來皆目見
이어진 산봉과 그 틈의 좁은 땅.	連峯僅有地
문 가득 조수가 들고 나고	潮汐納一門
사람은 조개 캐 먹고 사네.	人資蚌蛤利
...	
울울한 유자도는 외롭고	鬱鬱柚島孤
침침한 바다는 기이하네.	沈沈水府異
...	
누가 반짝 인생 이 몸을	誰將駒隙身
에서 길이 초췌히 옮겨 하시고.	永此吟憔悴
...	

-<書懷>(권3)

유자도에 수인으로 사는 심회를 잘 보여주는 시이다. <囚山賦>는 唐 柳宗元이 永州에 귀양 가서 산에 꿈쩍 없이 갇힌 자신의 신세를 읊은 작품이다. 홍언충은 이 유자도에서 유종원이 말한 뜻을 온몸으로 절감했다. 보이는 것은 이어진 산봉과 그 틈의 좁은 땅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조개를 캐 먹고 살고 있었다. 환경도 척박하고, 生利도 열악했다. 이 외롭고

21) 鄭希良, 『虛庵先生遺集』 권1, <寄直卿仲說>. “洪崖氣磊落 壁立摩蒼蒼”.

22) 이행, 『용재집』 권7 『海島錄』, <又以得醉卽吾家 爲韻賦之也> 제 5수. “堂堂寓庵士 老灌東陵瓜”.

울울한 섬에서 ‘吟憔悴’하는 홍언충은, 중앙에서 쫓겨나 강가를 거닐며 초췌한 모습으로 시를 읊던 屈原의 형상과 겹쳐진다.

...

탄알만한 땅에 한 번 떨어지니	一落彈丸地
고래 파도가 날마다 넘실거리네.	鯨濤日渺瀾
깊은 근심에 세월만 흘러가고	沈憂日月遷
추풍에 물버들 같은 몸 시드네.	秋風蒲柳衰

...

시름겨운 님이 자주 놀라 뒤채니	愁魂屢驚轉
바로 어머니가 손가락 깨무시는 때라.	正是嚙指時
바다 모래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海沙不足算
바다 파도는 일정한 모습이 없네.	海波無定姿
무소도 아닌데 나를 우리에게 가두고	匪兕我爲柙
범도 아닌데 나에게 고삐를 매었네.	匪虎我爲縶

...

-<謫中>(권2)

그는 자기 시는 곳을 ‘彈丸地’라고 표현했다. 이 좁은 땅은 고래 같은 파도에 에워싸여 있어, 알고 보면 감옥의 형국이다. ‘蒲柳’는 물버들인데 가을이 가까워지면 잎이 시든다. 허약한 신체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실제 홍언충은 본래 병약한 체질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²³⁾ 거기에 바닷섬의 열악한 환경이 병세를 돋우었다.²⁴⁾

23) 洪彥國, <墓碣>. “公夙嬰羸瘵”. 이의 홍언충의 병약함에 대해서는 권혁명, 앞의 논문, 2010, 155-156면 참조.

24) 이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든다. 『우암고』 권2, <寄諸兄弟> 제 2수. “十年湯鼎病攻中 京洛春光到眼空” ; <擇之寄詩 因書懷>. “藥裹還憎積 詩筒不■■■”. 권3,

그의 시름을 더 심각하게 부추기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다. ‘嚙指’는 曾子 어머니의 고사에서 나왔다. 증자가 공자를 따라 초나라에 있을 때 갑자기 마음이 움직여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너를 생각하며 손가락을 물었다.[思爾齧指]”라고 했다.²⁵⁾ “바다 모래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바다 파도는 일정한 모습이 없네.”라는 것은 객관 풍경이면서, 그가 맞닥뜨린 또는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 상황의 종합적 투영이다.

‘匪兕’ 운운은 『詩經』의 “무소도 아니고 범도 아니거늘, 어찌서 들판을 따르게 하는가? [匪兕匪虎 虎率曠野]”라는 말을 패로디한 것이다. 일찍이 공자는, 衛 나라를 떠나 陳 나라로 가던 도중 식량도 떨어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병이 들어 곤경에 처하자 ‘匪兕~’를 인용하면서 “우리 도가 그런 것인가?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탄식했다.²⁶⁾ 그런데 홍언충은 이 말을 바꾸어서 “무소도 아닌데 나를 우리에게 가두고, 범도 아닌데 나에게 고삐를 매었네.”라고 했다. 수인 형상의 기막힌 변주인 것이다.

이 밖에도 그의 시에는 南冠·南囚·楚囚²⁷⁾와 같은 시어들이 종종 보인다. 이는 죄수 특히 남쪽에 유배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상투어들이다. 그러나 그에게 이것은 일반 시어로 투입되기보다 일종의 주제의식의 차원으로 존립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것은 단절의 심상들을 동반하고 나타난다.

<雨夜書懷>. “羈旅仍多病 殘更睡失恬”; <書懷> “因病臥經旬 忽出爲人事”; <寄擇之> “實爲窮病欺 自與人事絕”; <寄擇之>. “元氣日銷鑠 槁木凍將僵”.

25) 『搜神記』 권11.

26) 『史記』 권4 『孔子世家』, “詩云 匪兕匪虎 率彼曠野 吾道非邪 吾何爲於此”.

27) 南冠은 春秋時代 楚 나라 사람이 쓰던 관. 晉侯가 군부를 시찰하다가 鍾儀를 보고서 “남관을 쓰고 갇혀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한 데서 유래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南囚, 楚囚라고도 한다.

...

곤봉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鯤鵬端未運
구름 낀 해만 거둬 쳐다보네.	雲日擬重瞻
서사는 바지런히 챙겨 두었건만	書史勤收護
과나리봇짐 막혔으니 안타깝기만.	囊裝惜滯淹
두 눈은 천 리 멀리 바라보는데	雙眸千里遠
허연 귀밑털엔 온갖 근심 덧쳤네.	衰鬢百憂兼
북쪽 기러기 소식은 막히고	北雁音猶阻
남관의 일은 이미 싫증났네.	南冠事已厭
긴 산은 구름에 가려 끊기고	山長雲蔽斷
넓은 하늘은 바다와 들러붙었네.	天闊浪糊黏
두역시니가 때때로 덤벼드니	魍魎時時狎
깊은 시름만 나날이 늘어가네.	窮愁日日添

...

-<雨夜書懷>(권3)

비오는 밤의 회포를 쓴 시이다. 이 시에는 ‘未運, 淹滯, 阻, 蔽斷, 糊黏’ 등 정체, 장애, 단절과 같은 부정적 심상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서는 섬, 비오는 밤이라는 외적 상황에 기인하되, 초점이 되는 한 구는 ‘南冠事已厭’이다. 즉 이 단절의 심상들은 바로 수인-간힌 자의 내면 풍경인 것이다. 모든 단절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가족과의 격리이다. 그는 다른 시에서도 ‘南囚, 自留, 昏昏, 踽踽, 自累’ 등을 운위하며 구속감, 단절감, 우울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근심과 자책감 등을 호소하곤 했다.²⁸⁾

홍언충은 유자도를 세상의 가장 끝, 갇힌 곳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돌

28) 『우암고』 권2, <春日書事> 제 1수. “北雁看歸盡 南囚只自留 昏昏長似醉 踽踽不成遊 永日花搖眼 中霄浪打頭 吾今坐自累 十口更深憂”.

아보면 유자도 안에는 그의 형제를 비롯해서 유배객이 이웃하고 있었다. 또 유자도와 거제도 사이도 왕래가 불가능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행 등이 거제도로 옮겨 온 뒤에는 찾아가거나 시를 주고받으며 교유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물리적 단절, 육신의 구속감과 함께, 그가 느끼는 정신적 단절, 심리적 속박감이다. 이것은 圍籬安置라는 악조건에 놓여 있던 이행보다 외려 두드러지는 감이 있다.

이행이야말로 죽음의 고비를 술하게 넘기며 거제도까지 흘러왔다. 이 행은 갑자사화 때 충주에 유배되었다가 함안으로 이배되고, 연산군 12년(1506) 1월 다시 거제도로 옮겨져 2월 위리안치되었다. 그러나 이행의 경우 유배지가 이동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정서의 양상이 완화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특히 동료들과 교유할 수 있었던 거제도에서는 내면화로 가닥이 잡혔다.²⁹⁾ 이에 대해 홍언충은 진안에 잠시 있었던 것 외에는 줄곧 거제도(유도) 한 곳에 붙들려 있었다. 게다가 자신의 죽음까지 단정할 만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떠밀려 온 터였다. 자신의 고난만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죽음, 형제들의 유배로 가문이 풍비박산이 났다. 직접적으로 언명한 비는 없지만, 어쩌면 자신의 가문이 도화선이 된 이 참화에 대해 일종의 채무의식이 있었을 듯도 싶다.

그 역시 시간이 흐르고 또 이행 등과 어울리면서는 정서가 누그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세상 끝이라는 인식, 수인 형상은 정서의 완화와는 별개로 포착된다.³⁰⁾ 이것은 절도정배라는 객관적 상황, 심리적 폐소감 함

29) 최재남, 『유배체험의 내면화와 시적 변용』,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404-406면.

30) 예컨대 앞서 살펴본 <遊柚島>가 그렇다. 홍언충은 수련에서 자신이 있는 곳을 ‘바다 밖의 바다 밖’이라고 표현했으나, 미련에서는 “평생에 이 흥취 본래 알지 않으니, 무엇하러 이소 지어 굴원을 배울 건가.[平生此興元非淺 不用離騷學楚臣]”라고 읊어 완화된 정서를 보이고 있다.

계 가문의 몰락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유배 어느 시기에
에도 감정을 폭발하는 예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어째서일까.

거제도는 감옥 그 이상, 죽음을 대기하는 공간이었다. 이런 일화가 있다.
어느 날 賜藥이 내려졌다는 소문을 듣고 동료 유배객들은 허둥지둥
도망가거나 탈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임금의 명은 하늘이다. 하
늘로부터 어찌 도망갈 수 있겠는가. 신하 된 의리로는 죽음이 있을 뿐이
다.” 하고, 형제들을 꾸짖어 탈출 계획에 끼지 않도록 했다.³¹⁾

그는 임금의 명을 하늘로 여기고 임금이 어떤 임금이라도 신하로서의
의리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그는, 후술하겠지만,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이 아무리 기막혀도 거스르려고 하지 않았다. 땀에는 자신이 처한 상
황을 도저히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것으로 여긴 탓이다. 그의 시에서
단절의 심상들이 분노, 원망보다 울음감과 자탄의 정조를 동반하고 나타
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런 이유들을 배면에 두고 있다.

2) 문화공간으로서의 섬, 詩·友를 통한 위무와 자기 계발

거제도의 두 번째 표상은 ‘문화공간’으로서의 섬이다. 홍언충의 거제도
유배시 대부분은 차운시·기증시이다. 절도정배지인데도 이처럼 관계 지
향성의 시가 많이 지어진 것은 그의 주변에 유배객들—형제를 비롯하여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 여럿이 함께 있었던 덕분이다. 그로 인해 거제도는
유형지이면서 또 한 겹의 표상을 갖는다.

31) 洪汝河, 『木齋先生文集』 권5 <山陽書堂立社呈文 代儒生作>. “先生三昆季與其中 島中日相驚 傳言賜藥已至 李公長坤脫身逃竄 於是諸公惶窘不知所出 密爲賃舟汎海之計 先生聞之 歎曰 君命天也 天可逃乎 臣子之義 有死而已 嚴責子弟 使不得預汎舟之謀”.

십 년 동안 도성에서 나란히 말 몰았는데 十年高轡竝天衢
만 리 남쪽 쫓겨나서 또 같은 길에 있구나. 萬里南遷又一途
...

다만 안타까운 것은 계돈사 맺지 못해 只恨鷄豚妨作社
꽃 앞에 탁주 두고도 부르지 못하는 것. 花前濁酒阻相呼

-<初到巨濟 寄眞擇兩君>(권2)

시제의 ‘眞·擇’은 홍언충이 거제도에서 가장 친밀하게 교류했던 崔淑生(子眞)과 李荇(擇之)이다. 이행은 전술했거니와, 최숙생은 홍언충과 사가독서를 같이 했던 사이로 역시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거제도도 유배되었다. 鷄豚句는, 한 마을 사람들이 친목을 다지기 위해契를 닦았던 일에서 끌어온 것이다.³²⁾ 시제의 ‘처음 거제에 도착해서’라는 말은 변증이 필요하다.³³⁾ 그러나 옛 친구며 동료들 이 외떨어진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기쁨과 서글픔, 또 앞으로 어울려 지낼 일에 대한 기대는 부족함 없이 읽을 수 있다. 거제도의 문화공간으로서의 표상은 이처럼 이행 등과 교류하면서 본격화한다.

홍언충의 시에는 이행·최숙생 외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추려보면 이러하다. 형제로는 洪彦昇(大曜), 洪彦邦(君美), 洪彦國(公佐)이 이웃해 살고 있었다.³⁴⁾ 벗으로는 李胤(子伯, 1462~?), 權敏手(叔達, 1466~1517), 金世弼(公碩, 1473~1533), 李長坤(希剛, 1474~1519),

32) 韓愈, 『昌黎集』 권7, <南溪始泛>. “願爲同社人 雞豚燕春秋”.

33) 최숙생이 거제도도 유배된 시기는 자세치 않다. 그런데 이행이 거제도에 위리안치된 것은 1506년 2월이니, 홍언충이 온 지 한참 뒤의 일이다. ‘처음 거제 도착해서’의 주어는 어찌면 이행 등이 아닐까. 혹은 홍언충이 유자도에서 거제도도 처음 왔다는 말인 듯도 싶다. 질정을 기다린다.

34) 『우암고』 권2, <寄諸兄弟> 제 1수. “曉窓花霧落淒淒 短夢還家一半迷 剩喜天涯得兄弟 還愁巷里隔東西”.

李膺(强哉, 1484~?), 李守誠(誠之, 생물년 미상) 등이 있었다. 또 魚得江(子游, 1470~1550), 李自華(實而, 1456?~1520) 등 지인들이 외부에서 종종 시를 부쳐 보냈다. 어득강과 종제 丁彭 등은 직접 거제도로 찾아 오기도 했다.³⁵⁾ 홍언충은 이중 이행·최숙생·김세필 등과 특히 잘 어울렸다.³⁶⁾

교유의 성황은 이행의 『海島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언승·홍언충 형제와 김세필이 술을 들고 위리안치 중인 이행을 방문하기도 하고,³⁷⁾ 벗들이 최숙생 있는 곳을 찾아가서 술로 문줄을 꼬득이다가 내쫓김을 당하는 해프닝도 있었다.³⁸⁾ 유자도에 모여서 노닐기도 하고,³⁹⁾ 聯句 짓기로 서로 詩才를 겨루고 교의를 다지기도 했다.⁴⁰⁾

홍언충과 이행 양인의 시와 기록을 두루 훑어보면 20인이 넘는 유배객이 당시 거제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해 볼 때, 이들의 교유는 대체로 이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행·홍언충이 죽이 되어 홍언충의 형제들, 최숙생·김세필이 어울리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35) 위의 책, 권3, <別魚子游> 제 1수. “鳥壤驛中先報信 鷄籠山下即相逢 古憐萍水他鄉會 今喜華夷一席同”.

36) 이는 이행의 다음 말에서도 확인된다. 이행, 『용재집』 권7 『해도록』, <余自竄居海島數與子眞·直卿·公碩諸公 相唱酬往復...>

37) 위의 책, 권6 『해도록』, <二十日 洪大曜直卿·金公碩 訪余園所 同飲溪上松亭 遂書以識>. “三君歎乖隔 斗酒過我廬”.

38) 위의 책, 같은 곳, <聞子伯·直卿·公碩諸公 訪子眞于園所 爲門卒所脅 惶遽而返 作五絕以戲之> 제 3수. “靑眼且留堂上賓 白醪爲餉門前卒 本欲結歡翻被猜 人間此事固非一 【是日 饋門卒酒】”.

39) 위의 책, 권7 『해도록』, <十七日 聞子伯諸公 泛海望月 余不可赴 聊以近律寄意>. “聞說清遊柚島邊 馮夷定自喜人賢”.

40) 위의 책, 권6 『해도록』, <溪上聯句>. “詩情從跌宕 交道未緇磷”. [詩註] “是月四日 公碩·君美 訪余于溪上 尋溪源 至一絕壁 瀑流甚奇壯 相與歎美久之 更約於望日 携子伯·子眞·大曜·直卿·公佐諸君來賞遂同聯 用堅其約”.

<p> 딱히구나, 중년에 병들어 누운 날 많은데 오늘 또 떠도는 신세를 누가 불쌍히 여기랴. 세상의 득과 실은 끝내 어디에 있는가 바다 밖에서 쓰는 시 점점 공교로워지네. 동문의 늙은 농부는 형편없이 파리한데 증악 선생은 심사가 그윽하네. 책 끼고 독서하기는 한가한 곳이 알맞고 기심 없이 단지 들고 일하다 피곤하면 쉬네. 도잠은 필시 진짜로 술 좋아하는 게 아니니 본래 술잔 앞에선 근심 붙이지 않아야 하는 법. 우습구나, 취했다 깨고 깰다가는 다시 취해 해 증천일 때 머리 부여잡고 일어날 등. 몸은 도성의 우로에 흠뻑 젖었건만 올해는 도리어 강 지나는 배에 올랐네. 생애는 이미 치이자에게 맡긴 채 다시 산속에서 샘물을 마시네. 인물은 삼대를 뒤쫓아 회복하려네만 문장은 백낙천에 비교되는 게 부끄럽네. ... </p>	<p> 自惜中年多臥病 誰憐今日更飄蓬 世間得失終安在 海外詩篇漸覺工 東門老圃疇羸甚 甌岳先生心事幽 挾策讀書閑處適 無機抱甕困來休 陶潛未必眞耽酒 自是尊前不着愁 笑我醉醒醒復醉 日高三丈試扶頭 身沐清都雨露邊 今年還上過江船 生涯已付鴟夷子 更向山中酌細泉 人物追還三代餘 文章羞比樂天如 ... </p>
--	--

-〈次擇之韻〉(권2)

이행의 시를 차운한 작품이다. 유배지에서의 생활, 괴로움, 그것을 견디고 이겨 나가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동문의 늙은 농부’는 홍언충 자신을, ‘증악 선생’은 이행을 이른다. 농부 운운은 미화법이 아니다. 유배인들에게는 일정한 잡역이 주어졌다. 홍언충은 配所에서 남의 채마밭 돌보는 일을 했고,⁴¹⁾ 위리안치된 이행도 낮에는 밖에 나가서 염소 치는 일을 했

41) 인용시의 ‘無機’ 구는 자신이 채소 가꾸는 일을 맡았음을 말한 것이다. 機心은 피를

다.⁴²⁾ 그래서 홍언충은 이행을 ‘牧叟’라고 칭하고,⁴³⁾ 이행은 홍언충을 ‘東陵灌園叟’에 빗대었다.⁴⁴⁾ 이들 시에는 유배지의 크고 작은 일상이 틈틈이 배어 있다. 들은 서로 고기, 채소, 딸나무를 보내 주는 등 살림의 빈 구멍을 지원해 주었다.⁴⁵⁾ 유배지는 그들에게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생활의 현장이기도 했다.

위 시에 잘 드러나 있듯이, 유배생활의 고단함을 위무해 주는 것은 시, 술, 독서, 그리고 벗이다. 이 네 가지는 한시의 대표적인 토포스이다. 그러나 홍언충에게 이것은 실제 삶의 면면이었다. 특히 유배지에서 시 짓는 일은 딴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일상사였다. 그는 “남쪽에 오니 딱히 좋은 일 없어, 주머니 상자에 시만 가득 하네.”⁴⁶⁾라고 했다. 그래서 시가 많아졌을뿐더러, 그 시도 점점 공교로워졌다(海外詩篇漸覺工). 유배체험이 시인의 문학적 창조력을 풀무질한 것이다.

이런 데는 詩友로서 品評을 아끼지 않았던 이행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⁴⁷⁾ 이행은 홍언충을 ‘白樂天’에 비견하고, 또 다른 시에서는 홍언충이

쓰는 마음을 이른다. 子貢이 길을 가다 한 노인이 물동이를 안고 우물물을 퍼다가 눈에 물을 대고 있는 것을 보고 왜 편리한 용두레를 쓰지 않는가 묻자 노인이 말하기를 “機械가 있으면 반드시 機事가 있고, 기사가 있으면 반드시 機心이 있다.[有機械者必有機事 有機事者必有機心]”라고 했다. 『莊子』「天地」.

42) 이행, 『용재집』 권6 『해도록』, <雨【僕輩自被配 圍以棘籬 守以兵卒 晝則出役 二品宰相 號鎖幽謹理使 察督出入 以雨日不能役 令鎖門 不許出】>.

43) 『우암고』 권2, <寄擇之>. “剩待蛇妖滅 重煩牧叟評”.

44) 이행, 『용재집』 권6 『해도록』, <直卿·公頌 次子眞韻見示 余復答之> 제 4수. “亂山深處更無村 只有清溪瀉一源 爲報東陵灌園叟 幾時行色照荊門【直卿 時定菜園之役】>. ; 권7 『해도록』, <又以得醉卽吾家 爲韻賦之也> 제 5수. “堂堂寓庵士 老灌東陵瓜”. 秦의 東陵侯 召平이 장안성 동쪽에 살면서 외를 가꾸었는데 그 맛이 달아 세상에서 ‘東陵瓜’라고 했다.

45) 위의 책, 권6 『해도록』, <謝直卿惠肉>; <饋直卿山蔬 兼示公頌>; <山薪寄直卿>.

46) 『우암고』 권2, <與擇之同賦 復用前韻>. “南來無長物 囊篋以詩盈”.

斯文을 담당할 인물이라고 칭찬했다.⁴⁸⁾ 거제도에서 이행은 평생의 절친 朴聞(1479~1504)⁴⁹⁾이 가고 없는 자리에 홍언충을 대신 두었던 것이다.

홍언충 등 유배객들의 어울림은 일상의 위무, 문학적 교감에만 의미가 그치지 않았다. 위 시에서 “인물은 삼대를 뒤쫓아 회복하려 한다.[人物追還三代餘]”라는 말이 시사하듯 이들의 교유는 儒者로서의 목표를 확인하고 재다짐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들이 거제도도 쫓겨나 한데 몰려 있게 된 것은 그래서 거제도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 된 것은 바로 연산군의 폭정 때문이 아닌가. 연산군(의 폭정)에 대한 각인의 대응 행태는 차이가 있었으나,⁵⁰⁾ 이들에게는 함께 노니는 친구를 넘어 이상과 지향을 공유하고 연대한다는 일종의 同類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⁵¹⁾

만 리 부평초 같은 가련한 인생이건만	萍蓬萬里可憐生
명현들이 오히려 반가이 맞아해 주네.	猶被名賢倒屣迎
어찌 감히 용문에 새 봉 자를 쓰리오	敢向龍門題鳳字
곧 남두성이 문성 피하는 걸 보겠네.	卽看南斗避文星

-〈次友人韻〉 제 3수(권3)

47) 이행, 『용재집』 권6 『해도록』, <次直卿 兼示公碩【直卿有吹毛之語 戲答之】>. “朋友須無隱 文章戒自盈 深言非所恥 一藝豈相輕 藻鑑慙先進 蓬心例後生 更能求逆耳 隔屋有名評”.

48) 위의 책, 같은 곳, <答直卿>. “吾窮亦何恨 珠玉眼前盈 氣挾雨雷壯 力排山嶽輕 斯文知未喪 天道自相生 白傅才超世 猶須老嫗評”.

49) 박은은 이행과 가장 절친한 벗이다. 갑자사화 때 26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이행이 그의 시를 모아서 『邑翠軒遺稿』를 펴냈다.

50) 3.1.의 賜藥 일화 참조 4. 나오는 말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51) 이를 보여주는 몇 예를 든다. 『우암고』 권2, <強哉來訪 話了漫書>. “羈旅俱懷萬斛愁 過逢猶喜是吾流”. ; 권3, <次金從事韻【惠詩 更有以發人之思者 復此再賡】>. “螻蛄豈識風霜苦 此意聊持我輩同”.

‘鳳’을 破字하면 ‘凡’과 ‘鳥’가 된다. 평범한 사람, 속된 사람을 의미한다. 魏 나라 때 呂安이 친구 嵇康을 찾아갔으나 嵇康이 외출 중이어서 대신 그 형 嵇喜만 만나보고는 문에다 ‘鳳’ 자를 쓰고 돌아갔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南斗’는 남쪽에 있는 별이고, ‘文星’은 文運을 맡은 별로 북쪽에 있다. 즉 북쪽에서 문장이 훌륭한 사람이 오니 남쪽에 있는 자기는 응당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앞 제 2수에서는 “지금 대각에는 규벽이 즐비하니, 누가 강호의 처사성을 기억하리오?”⁵²⁾라고 했다. 아마 그때 외부(서울)에서 이름 높은 인물이 방문을 했던 것은 아닐까 싶다. 홍언충은 자신을 한껏 낮추고 있지만 도리어 그것을 뒤집은 깊이만큼의 자부심이 보인다. 그 개인으로 보면, 거제도에서 이루어진 당대 최고 엘리트, 내로라 하는 시인들과의 교류는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게 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한편, 유배객들이 어울리는 자리에 李鶚·李孟全·李伯完 등 거제도의 시인과 지식인들이 동참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⁵³⁾ 홍언충은 그중 이악을 ‘海外無雙’이라는 말로 칭찬했다.⁵⁴⁾ 말하자면 이악과의 만남은 地域人材의 발견이었다.

거제도 유배생활은 유배객 내부의 교류는 물론이고, 그들에게 이끌린 외부 지식인의 방문, 거제도 현지 지식인의 참여 등, 서로 다른 문화의 축

52) 위의 책, 권3, <次友人韻> 제 2수. “只今臺閣森奎壁 誰記江湖處土星”.

53) 이행, 『용재집』 권7 『해도록』, <同諸君遊九川場 聯詩題小石 藏之岩竇>. [詩註] “岳溪洪彥昇大曜·彥邦君美·德水李苻擇之·鷄林金世弼公頌 同李鶚來飲 盡歡而罷 鶚縣士 字斯立 正德丙寅七月二十有六日 識”; 같은 곳, <醉遊歌>. “二十一日 邀恭伯·子善·元叔·強哉·訥之·公信 同飲神清潭上 縣士人李孟全·伯完 亦來與”.

54) 『우암고』 권3, <贈巨濟儒李鶚>. “海外無雙李秀才 聞名不見已開眉”.

이 접촉하는 文化交涉 또는 文化交叉⁵⁵⁾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중앙의 지식인, 중앙의 문화를 변방의 섬 거제도도 ‘밀어줌’으로써 오히려 문화의 창조적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은 갑자사화의 역설적인 의의이다. 물론 이에 대해 거제도의 문학·문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는 별도의 논의로 심중히 따져볼 문제이다.

3) 길로서의 섬, 성찰과 順命 그리고 진실의 발견

거제도의 세 번째 표상은 ‘길’이다. 섬은 그를 잡아가두는 감옥이었고, 詩·友로써 위로 받고 자기를 계발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는 한편 섬은 자신과 세상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는 유배지에서 보내는 일상에서, 이를테면 구체적인 기후 상황을 겪거나 주변 사물을 관찰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성찰의 주제를 찾아내곤 했다. 늦봄 어느 날은 크게 천둥 치고 비가 내리더니 바람까지 불었다. 그는 책까지 내던지고 밧줄로 침상을 동여매면서 “우습구나, 평생 담력 하난 자부했건만.”이라고 自笑했다.⁵⁶⁾ 절도유배라는 非常한 상황은 스스로 미처 알지 못했던 ‘나’를 끄집어내 주었다. 수인으로서의 속박감·단절감과는 또 다른 당황스러움·부끄러움 따위의, 그러나 자신을 제대로 응시하게 하는 감정들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나에 대한 성찰은 다른 한편으로 현실 대응 문제와 긴밀히 물려 있다. 다음 시가 좋은 예이다.

55) 최재남, 앞의 논문, 2005, 401면.

56) 『우암고』 권2, <暮春十二日 大雷雨以風> 제 1수. “中天有聲劃如裂 倒海摧山勢 莫當 自笑平生誇膽氣 卒然投卷繞繩床”.

...

차형은 빙설 같은 자태에	此兄氷雪姿
꽃꽂한 절개는 하늘에서 타고났네.	耿介得之天
장기 낀 고을에서 만났는데	相逢瘴霧鄉
나를 맞이하는 얼굴 어찌나 환하던지.	迎我輒粲然
그 황홀함은 일생의 기쁨이라	悅如平生歡
소매 당기며 그 어깨 두드렸네.	挹袂拍其肩
가련하다 차형이 너무 외로워	憐兄太孤債
붉은 치마 고운 여인을 짝으로 맞았는데.	紅裙配嬋妍
오늘 아침엔 맵시가 사납게 달라져	今朝殊綽虐
안색이 이전과는 틀려졌네.	顏色不如前
본래 지닌 철석같은 마음이	向來鐵石心
부끄럽게도 요녀 따라 변했구나.	恥隨尤物遷
일찍이 들으니 유하혜의 화함은	嘗聞士師和
백이의 치우침과는 같지 않다네.	不類伯夷偏
의연히 옆에서 옷을 걷고 몸을 드러낸들	怡然裸袒側
나의 어짐을 더럽힐 수는 없다 했네.	未浼於吾賢

...

-<賦梅花桃花同插一瓶>(권2)

매화(此兄)와 복숭아꽃이 한 병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쓴 시이다. 이 역시 일상에서 제재를 취했다. 그러나 도저한 주제는 결국 ‘나는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는 매화와 복숭아꽃을 의인화해서, 매화는 氷雪의 자태에 耿介한 자질을 가진 사내로, 복숭아꽃은 紅裙을 두른 어여쁜 여인으로 그렸다. 사내의 철석같던 마음은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서 변했다. 그는 이에 대해 ‘부끄럽대[恥]’고 했다. 화제는 柳下惠(士師)와 伯夷로 전환된다. 흥언층

은 유하혜와 백이를 대조하면서 유하혜의 ‘和’는 백이의 ‘偏’과는 같지 않다고 했다.

백이는 孤竹國의 왕자였다. 周 나라 武王이 隱 나라의 紂王을 토벌하자 동생인 叔齊와 함께 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다가 죽었다. 유하혜는 춘추시대 魯 나라 때 현자이다. 士師 즉 사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세 번이나 파직되었는데도 다른 나라로 가지 않았다.⁵⁷⁾ 백이는 섬길 만한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았고 鄉人과 함께 서 있을 때 그의 冠이 바르지 못하면 마치 자신을 더럽힐 듯이 여겼다. 그러나 유하혜는 어떤 임금을 섬겨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니, 네 비록 내 곁에서 옷을 견고 몸을 드러낸들 네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 했다.⁵⁸⁾

홍언충은 이중 무엇인가. 皎潔함을 지키다가 속세의 유혹에 빠져 변질되고 만 매화인가. 자신의 절조를 지키다가 세상과 단절하고 마침내 꺾여 버린 백이인가. 道에 충실할 뿐 특정한 임금이나 관직에 집착하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도 올바름을 잃지 않았던 유하혜인가.

성품으로만 보면 홍언충은 매화나 백이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는 평소 매화를 좋아해서 종종 시로 읊었고,⁵⁹⁾ 백이의 고결함을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았다.⁶⁰⁾ 문제는 ‘나는 무엇인가’보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

57) 『論語』 『微子』. “柳下惠爲士師 三黜 人曰 子未可以去乎 曰 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

58) 『孟子』 『公孫丑上』. “伯夷 非其君不事... 思與鄉人立 其冠不正 望望然去之 若將洗焉... 是故 諸侯雖有善其辭命而至者 不受也 不受也者 是亦不屑就已 柳下惠 不羞汚君... 故曰 爾爲爾 我爲我 雖袒裼裸裎於我側 爾焉能洗我哉 故由由然與之偕而不自失焉 援而止之而止 援而止之而止者 是亦不屑去已”.

59) 詩題에 ‘梅’가 들어있는 예를 몇 개만 들어본다. 『우암고』 권1, <次散隱瓶梅韻>; <隱送梅花 詩以報之>. 권2, <雨後步出溪上 見梅折回 挿瓶 寄眞擇>; <春晚賦梅>.

가' 하는 것이다. 그는 和光同塵의 유하혜 쪽으로 자기 길을 생각한 것 같다.⁶¹⁾ 전술한 것처럼 그는 임금의 명을 하늘로 여기고 나쁜 임금일지라도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점은 유하혜를 닮아 있다. 그는 혼자가 아닌, 시대에 섞여들어 내 역할을 수행함을 자신의 본분으로 여겼다.⁶²⁾ 그가 당시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갑자사화로 유배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출사했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⁶³⁾

공자는 뗏목 타고 바다로 떠가려 하셨고 宣尼有筏浮于海
 주공은 수레 만들어 길 잃지 않게 하셨네. 姬聖爲車指不迷
 알 수 없구나 세상의 수많은 갈림길들 不識世間岐路許
 머리 돌려 북쪽 보니 되레 서쪽이 되네. 回頭看北却成西
 -〈復次韻寄公佐〉 제 1수(권2)

아우 흥언국에서 부친 시이다. 孔子는 천하의 어지러움을 탄식하여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가려 한다.”⁶⁴⁾라고 했다. 周公은, 越裳氏의 사신이 흰 꿩을 바치고 돌아갈 때 그가 길을 잃지 않도록 指南車(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도록 만들어진 수레)를 주어서 보냈다. 특히

60) 『우암고』 권2, <宿花山別館>. “冷徹心肝伯夷潔 薰餘衾枕令君香”.

61) 위의 책, 같은 곳, <賦梅花桃花同插一瓶>. “兄雖自皓皓 此物方登筵 且可混光塵 以取時世憐 吾言真可否 嘆息淚如湍”.

62) 이런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예로, 창작 시기는 알 수 없으나, <靈壽杖賦>를 들 수 있다. 영수장은 前漢 때 太師 孔光에게 내려준 지팡이다. 흥언충은 이 작품에서 “님 어지는데 부축하지 못하고 위태로운데 붙잡지 못하면, 어찌 이 지팡이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사람이 저 나무만도 못하다면, 장차 저 신하를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우암고』 권1, <靈壽杖賦>. “不扶顛而持危 寧不愧於茲杖 人不如乎彼木 將焉用夫彼相”.

63) 권혁명, 앞의 논문, 2010, 182면.

64) 『論語』 『公治長』. “道不行 乘桴浮于海”.

첫 구의 ‘바다로 떠가려 하셨다’라는 말은 바다 가운데 섬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내면에는 공자의 도를 계승해 펼치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 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그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한 치 앞도 헤아리기 힘든 시대, 섬에 유배되어 있는 처지에서는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려 결심하든 쉽사리 단행하기 어려웠다. 이 시에는 도가 부재하는 세상, 길을 찾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시대 인식,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갈등과 고뇌가 고스란하다.

논리적 순차로 보면 질문은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내가 이러하고 현실이 이러하고 시대가 이러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옛날 내가 태어나던 때	昔我降命初
그 해가 뱀띠 해였지.	其年歲在蛇
궁한 음기에 못용들 폐색되고	窮陰閉群龍
얼음 눈이 또 뒤덮어 버렸네.	氷雪仍藏遮
내 생이 어찌 하늘의 뜻 아니랴	我生豈非天
이 곤약은 어찌할 수가 없구나.	此厄無如何
...	
새해에 만물 생의 왕성하건만	新年物意王
나는 오히려 비꾸러졌구나.	顧我猶蹉跎
그저 덤덤한 말이나 가지고	惟將冷淡語
한 집 사는 이에게 자랑할 밖에.	聊與同舍誇

-<感懷示同寓>(권3)

새해를 맞이해 지은 시이다. 나의 이 곤약은 무엇 때문인가. 그는 자신의 곤약은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다. 자기가 태어난 해(1473, 계

사년)가 뱀띠 해 게다가 음력 선달[窮陰]이었다면서 자신의 곤역을 하늘의 뜻으로 돌렸다. 그리하여, 만물의 생의가 왕성해지는 때에 자신의 비꾸러짐을 대조하면서도(顧我猶蹉跎), 거부·외면이 아닌 받아들임을 통해 감정을 안으로 누그러뜨리는 방향으로 갔다.

그렇저렇 생애에 배 타기도 익숙해졌으니 生涯兀兀慣乘船
호해에서 보낸 삼 년 하늘이 함께 있었네. 湖海三年有老天

...

세상일일랑 그저 서안에 기댈 만하니 世事只堪供隱几
솔바람 소리 꿈결 속에 더욱 시원하구나. 松聲和夢更愴然

-〈次擇之韻〉 제 2수(권2)

“호해에서 보낸 삼 년” 운운으로 보아 유배생활 끝무렵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배 타고 오가는 데도 익숙해진 지금, 호해에서 보낸 삼 년은 하늘과 함께 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허명이니 병이니 하는 데서는 여전히 자기 형상이 밝지 않으나,⁶⁵⁾ 마지막 연에서는 세상일에 더는 휘둘리지 않고 편안히 놓여나 있는 자아가 보인다. 제 1수에서는 “누가 약한 힘으로 바람배의 닻줄을 맏까, 나아가고 물러남은 원래 하늘에 달린 것.”⁶⁶⁾이라고 했다. 그의 이 편안함은 껴안음, 받아들임, 곧 順命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덧없는 인생 흐림 맑음 점칠 수 없거니 浮生未可卜陰晴
어찌 군평에게 삶과 죽음을 묻겠는가. 敢向君平問死生

65) 『우암고』 권2, 〈次擇之韻〉. “百巧千窮渾得暮 聽鷄抹馬累驚遷 一生已被虛名誤 作客仍爲未疾纏”.

66) 위의 책, 같은 곳, 〈次擇之韻〉 제 1수. “誰將弱力纜風船 出處元知更繫天”.

그 속의 출처 행장이 별것이라
석양 속 빈 방 (결락) 환히 비추네.

箇裏行藏無一物
夕陽虛室■來明

-<次子眞韻> 제 7수(권3)

인생의 길흉은 점칠 수 없으니, 漢 나라의 高士 君平에게 생사를 물을 필요도 없다. 마지막 구에 글자가 하나 빠져 있어 정확지는 않으나, 『莊子』의 ‘虛室生白’을 떠올리게 한다.⁶⁷⁾ ‘虛室’ 곧 빈 방은 물욕이 전혀 없는 텅 빈 마음을, ‘白’은 흰빛이니 곧 도를 비유한다. 마음을 텅 비워 無慾의 경지에 이르면 저절로 道心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런데 ‘虛白’은 바로 부친 홍귀달의 호가 아닌가. 홍귀달이 자신의 호를 ‘허백’이라 한 것은 인간의 유한한 삶 속에서 안위와 영욕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자 했던 의지의 한 표현이었다.⁶⁸⁾ 그 허백의 삶은 또한 아들 홍언충이 지향하는 것이었으리라.

이행은 거제도에서 자기가 살던 곳을 새 삶터로 전환, 개발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산 이름을 ‘高節嶺’으로 바꾸고 골짜기 이름을 ‘逍遙洞’이라고 지었다.⁶⁹⁾ 자기 절개를 드러내고 자신이 隱者임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逍遙洞·白雲溪·歲寒亭·醒心亭·君子池·此君亭·雲門瀑·神淸潭·止足亭·保眞堂을 십경으로 삼아 시를 붙이고, 최숙생에게 차운시를 쓰게 했다.⁷⁰⁾ 또 <名山水說>⁷¹⁾을 지어 그곳에 그런 이름을 붙인

67) 『莊子』 『人世間』, “瞻彼闕者 虛室生白 吉祥止止”.

68) 강지희, 『홍귀달 시에 나타난 유선적 삶과 허백에의 지향』, 『한문학회』 11, 우리한문학회, 2004, 54면.

69) 이행, 『용재집』 권6 『해도록』, <逍遙洞記>. “丙寅歲 余竄配巨濟島 幽于高絶嶺之下 嶺俗 傳火者峴 余定今名 亦號曰高節”.

70) 이에 대해서는 이종목, 『조선전기 위리안치의 체험과 그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5, 36-46면 참조.

71) 이행, 『용재집』 권6 『해도록』, <名山水說>.

이유를 밝혔다. 이행은 말하자면 자기 공간과 삶을 ‘創發’하는 사람이었다.

반면 홍언충은 이행처럼 공간을 발굴, 명명, 자기화하는 데 별 뜻이 없었다. 여러 고민과 갈등을 비치면서도 결국은 주어진 상황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바깥을 경영하기보다 내 ‘빈 방’의 진실을 발견하는 일이 그의 궁극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 나오는 말-‘빈 방’의 진실을 찾아가는 길

①

본고는 홍언충의 거제도 유배한시를 살펴되 특히 거제도의 표상에 초점을 두고 유배체험 및 그 문학적 형상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제시한 감옥, 문화공간, 길 이 세 차원은 비단 홍언충뿐만 아니라 유배한 시 일반에 대한 분석틀로서도 유용한 가치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본론에서 논한 내용에 대한 단순 요약은 생략한다. 이 결론에서 문제 삼을 것은, 그래서 홍언충의 거제도 유배체험·유배한시가 어떠한 의미와 의의, 그리고 한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점부터 짚는다.⁷²⁾ 이행은 거제도에 있는 8개월 동안 쉽없이 시를 썼다. 『해도록』에 이때 지은 181제의 시가 실려 있다. 한 제목에 여러 수가 실려 있기도 하니 실은 거의 날마다 시를 쓴 것이다. 이행은 이들 시에서 유배생활의 외로움과 괴로움, 경관 등을 읊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었다.⁷³⁾ 이

72) 한계는 이행과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다만 이행의 거제도 유배시 연구는 후고를 기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선행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비교의 대략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에 비해 홍언충은 2년 동안 있으면서 60제 안팎, 110여 수의 시를 남겼다. ‘남쪽에 온 뒤로 시를 많이 지었다’라고 했지만, 기간에 비해서 작품 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시가 일실된 탓도 있겠고, 혹은 <眞安途中吟>에 시사된 대로 유배생활 동안 남의 이목을 꺼려 시 짓는 일에 상대적으로 신중했을 수도 있다.

시 내용도 전반적으로 볼 때 바깥, 미래의 삶을 능동적으로 경영하거나 계획하기보다 내면, 현재의 삶을 다듬으며 順容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 까닭인지 이행의 시에서는 살아있는 거제도, 생생한 유배체험이 감촉되는데 비해 홍언충의 시에는 이런 점이 약하다. 그의 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조선전기 거제도의 구체적인 풍물, 현지인의 문화 수준과 내용, 유배객들의 입체적인 생활 모습 등을 읽기 원한다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홍언충 유배한시의 한계라고 하면 부인하기는 어렵다.

[2]

홍언충의 유배체험·유배한시는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당시 이행 등 유배객들과 함께 일군 유배문화·유배문학에 기여한 측면이다.

홍언충은 벗들과의 왕래, 놀이, 시 창작 및 품평을 통해 유배생활의 괴로움과 소외감을 위안 받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문학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것은 물론 다른 유배객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더불어’ 이루어낸 문화적 성황(생활·놀이·문학)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들의 접촉이라는 점에서 볼 때 거제도는 훌륭한 교유의 장, 문화공간, 문화교섭 공간의 의미까지

73) 최두식·엄경흠, 『이행의 거제 유배기 『해도록』 소재 시 연구』, 『석당논총』 31,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2, 185면.

획득한다. 조선시대 유배사, 언제 어느 곳에 이런 성사가 있었던가. 흥언 충은 이 성사를 이룩하는 데 이행과 함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인물로서 충분히 평가될 가치가 있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문학·생애의 맥락에서 말할 수 있다. 그는 시에 자신의 유배체험을 얼마나 진실하게 담아냈는가, 이 유배체험을 생의 자료로 삼아서 어떻게 자신의 길을 내었는가.

그의 시에는 거제도에서의 생생한 체험이나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대신 그는 자신의 삶·생각의 곁을 자신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다.

그는 급박하게 떠밀려 와서 줄곧 거제도 한 곳에 붙들려 있었다. 게다가 아버지는 처형되고 형제들이 함께 거제도에 유배된 극한의 상황이었다. 그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또 이행 등과 어울리면서는 정서가 누그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고 이행처럼 ‘유배의 땅을 즐거움의 땅으로 삼⁷⁴⁾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처한 현실이 그만큼 강박한 탓이고, 근본적으로는 그가 順命과 내 ‘빈 방’의 진실을 발견하는 쪽으로 마음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당초 본고에서 구도한 세 차원의 표상은 순차적 변화 양상(감옥에서 문화공간으로, 문화공간에서 길로)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통틀어 볼 때 그 최종적인 의미는 ‘길’로서의 섬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감옥이든 문화공간이든 그 역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에게 거제도 유배체험이 갖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는 ‘빈 방의 진실을 찾아가는 길’이었으며, 그의 유배한 시는 바로 그 길 위에서 쓴 시라고 할 수 있다.

74) 이종목, 앞의 논문, 2005, 61면.

3

중종반정 때 선생이 드디어 방환되었으나 委質의 의리를 생각하여 중종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중략) 읍취헌 박 공은 끝내 처형되어 죽었고, 허암 정 공은 방외에 노닐었으며, 용재 이 공은 성군을 만나 벼슬이 재상의 반열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출처의 완전한 절개를 가지고 따진다면 논자들은 네 분 중에 선생을 으뜸으로 꼽는다.⁷⁵⁾

홍언충은 중종 원년(1506) 가을에 사면을 받았다. 그는 출발할 때 지은 시에서 다시는 도성 거리에서 말안장에 걸터앉을 마음이 없다고 했다.⁷⁶⁾ 실제로 성균관 직장에 임명되어 사가독서를 명받았으나 병으로 사양했다. 그는 2년 뒤인 중종 3년(1508)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자찬묘명에서 소원한 대로 고향 무림 마을에 묻혔다.

홍언충이 중종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것은 병약함만이 이유가 아니었다. 어떤 임금이든 그 임금에게 신하의 의리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였다. 그러나 정작 좋은 임금을 만나서는 세상에 나가는 길을 접었다. 그는 폐조 연산군을 위해 끝까지 절개를 지킨 유일한 사람이었다.⁷⁷⁾ 이에 반해 이행은 해배 뒤 30여 년 간 조정에서 淸要職을 두루 역임했다. 사람의 맹장으로 유배지에서 곤궁한 시간을 보냈기에 조정에 돌아온 이행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다.⁷⁸⁾

75) 洪汝河, 『木齋先生文集』 권5 <山陽書堂立社呈文【代儒生作】>. “中廟反正 先生遂得放還 然念委質之義 不應中廟之徵 (중략) 挹翠朴公 竟被戮死 虛庵鄭公 託跡方外 容齋李公 際會聖后 致位廊廟 然跡其出處完節 論者於四傑之中 以先生爲稱首焉”.

76) 『우암고』 권3, <丙寅秋 被放將發 寄君美兄 兼呈僉侍>. “分明日下是長安 羸病無心更據鞍”.

77) 李肯翊, 『燃藜室記述』 『燕山君故事本末』, ‘燕山朝節信’. “不幸早卒 爲廢朝守節之人 惟寓菴而已”.

홍언충과 이행의 해배 후 행로는 대조적이다. 두 사람의 忠節觀이나 出處觀이 다른 까닭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각자 유배체험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것을 생의 어떠한 자료로 삼았는가 이것이 두 사람의 행로를 다르게 내었던 것은 아닐까.

요컨대, 홍언충에게 거제도/유배생활/시 짓기는 곧 ‘빈 방의 진실을 찾아가는 길’이었으며, 이것은 해배 후의 삶으로 분명한 결론이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李苻, 『容齋集』, 한국문집총간 20.

洪彦忠, 『寓菴稿』, 한국문집총간 18.

洪彦忠, 『寓菴先生文集』,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강지희, 「홍귀달 시에 나타난 유선적 삶과 허백에의 지향」, 『한문학회』 11, 우리한문학회, 2004, 31-57면.

고영화, 「거제도 고전문학의 이해(1)」, 『뉴스앤거제』, 2011년 3월 17일.

권혁명, 「우암 홍언충의 한시 연구-불운의 ‘병상구’와 ‘和光同塵’의 현실대응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6, 우리어문학회, 2010, 147-185면.

김범, 『연산군-그 인간과 시대의 내면』, 글항아리, 2010, 1-395면.

김은지, 「이행의 유배시에 나타난 정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46면.

이종묵, 「조선전기 위리안치의 체험과 그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5, 33-66면.

장선영, 「조선시기 유형과 절도정배의 추이」, 『지방사와 지방문화』 4-2, 역사문화

78) 이종묵, 앞의 논문, 2005, 45면.

학회, 2001, 169-202면.

최두식·엄경흠, 『이행의 거제 유배기 『해도록』 소재 시 연구』, 『석당논총』 31,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2, 183-197면.

최재남, 『유배체험의 내면화와 시적 변용』,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387-419면.

한희숙, 『조선전기 이세좌의 생애와 갑자사화』, 『조선시대사학보』 50, 조선시대사학회, 2009, 41-71면.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Geojedo(巨濟島) and Representation of Exile in the
Poems of WooAhm(寓菴) Hong Eun Chung(洪彦忠)

Kim, Bo-kyeong

Involved in the Gabja Annihilation, WooAhm Hong Eun Chung(1473-1508) was exiled to Geojedo for two years during which he created around 60je(題)(approximately 110pieces) that composed one quarter of his entire oeuvre. This study analyzes the representation of Geojedo and Hong Eun Chung's experience of exile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island as a prison—the figure of prisoner and sense of separation. During the Gabja Annihilation, his father Hong Gui Dal was executed and his brothers were exiled to Geojedo. What the distinctive in Hong's poems are the reality of detainment in an isolated island, claustrophobic sense and the demise of family. The representation of prison and the figure of prisoner are accompanied with the sense of separation, in which depression and lamentation is more dominant than anger or frustration.

Second, island as a space of culture—the consolation and self-development through poetry and friends. Most of Hong's works were involved with relationship as he was surrounded by many colleagues who had the same fate in Geojedo. Geojedo, particularly after a group of literati including Lee Haeng, became a locus of culture and cultural exchange as the exiled, intellectual in and outside of Geojedo frequently visited and participated in the intellectual activities in the island. Consoled under this circumstance, Hong could communicate and developed himself in literature.

Third, island as a passage—contemplation, acceptance of his fate and discovery of truth. During the time he spent in Geojedo, Hong contemplate on the world and himself to find the truth. He found the topics as to who he was and how he should live the rest of life in the everyday life of exile and as a result he accepted the given situation and

turned more introspective. As his father's pseudonym, HuhBaek(虛白), describes, he accepted what was given to him and chose to find the truth of "huhshil(虛室)" rather than manage public affairs.

Hong secluded himself after returning from the exile not just because of the illness. The way he accepted his exiled life in Geojedo determined the rest of his life. His exiled life, Geojedo and poetry led to "find the way to the truth of huhshil," and determined the life after the exile.

Key Words WooAhm(寓菴), Hong Eun Chung(洪彦忠), Geojedo(巨濟島), exile, exile poetry, Hong Gui Dal(洪貴達), Lee Haeng(李苻), huhshil(虛室)

논문투고일 : 2012. 11. 14
심사완료일 : 2012. 12. 03
게재확정일 : 2012. 12. 03